

철학사

03 그리스 소피스트들

휘튼 대학의 아서 홈즈 박사 저

우리는 이틀 동안 소크라테스 이전 철학자들에 대해 이야기해 왔고, 이제 여러분은 그들이 무엇을 하려 했는지 꽤 잘 이해하게 되었기를 바랍니다. 흔히 그들의 사상은 과학 이전 시대의 우주론적 사변으로 여겨지지만, 동시에 그 모든 것을 관통하고, 어떤 면에서는 그 모든 것의 근간을 이루는 것은 자연의 질서 있는 통일성, 도시 국가의 질서 있는 통일성, 그리고 적어도 마땅히 그래야 할 개인의 도덕적 삶의 질서 있는 통일성 사이의 주목할 만하고 놀라운 유사성을 이해하려는 시도입니다. 그리고 따라서 도덕의 형이상학적 토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현실의 본질에 기반을 둔 윤리라는 관점에서 생각해 봅시다. 도덕의 형이상학적 토대 말입니다. 이제 우리가 소피스트들을 접하게 되면, 그들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 대체로 그들은 이전 시대의 흐름에 대한 반발로 나타났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들은 그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가 강조해 온 소크라테스 이전 철학자들의 두 가지 특징에 더해, 우리가 스쳐 지나가듯 언급했던 세 번째 특징, 즉 신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려는 시도, 혹은 신의 개념의 초기 발전에 대해서도 그들은 회의적이었습니다. 따라서 소피스트들에게서 발견되는 가장 중요한 특징은, 현실에 대한 진실을 알 수 있다는 가능성에 대한 회의주의입니다.

자연에 관해서 말하자면, 그리스인들에게 있어 자연이란 단순히 존재하는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현실에 대한 진실을 아는 것에 대한 회의론이죠.

마치 소크라테스 이전 철학자들 사이의 논쟁, 유일신론자와 다원신론자 등 그 외 모든 논쟁에 뛰어들기보다는, 사실상 당신들의 모든 진영과 당신들의 모든 시도에 재앙이 닥치기를 바라는 것 같습니다. 그들은 그냥 그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포기해 버린 것입니다.

그들이 제기하는 불만 사항의 유형은 예를 들어, 서로 다른 입장들의 양립 불가능성, 또는 특히 최근 들어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특정 입장들의 상호 비교 불가능성'과 같은 문제에 끊임없이 직면한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의 입장을 다른 입장의 언어로 단순히 번역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둘은 전혀 어울리지 않아요. 조화롭지 않고, 서로 분리돼요.

또한, 논증의 동등성이라는 것도 중요합니다. 동등성이란 간단히 말해 찬성 논거가 반대 논거보다 더 큰 비중을 갖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한 입장을 지지하는 논거는 다른 입장을 지지하는 논거 또는 첫 번째 입장을 반대하는 논거에 의해 상쇄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접미사에서 드러나는 이러한 특징들은 후대 회의주의의 특징입니다. 진실을 알 수 없다는 입장을 뒷받침하는 몇 가지 유형의 논증이 있습니다.

논증의 동등성에서 비롯된 논증은 전형적인 논증 방식입니다. 대안들의 비공통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이죠. 그리고 물론, 모든 다양한 견해들이 내재하는 양립 불가능성과 모순성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소피스트들이 소크라테스 이전 철학자들이 제시한 과학 이전적 우주론을 싫어하고 거부했다면, 그들은 진리를 탐구하려는 노력 대신 무엇을 했을까요? 바로 지식 추구를 포기하고 수사학에 몰두한 것입니다. 비논리적인 수단을 통해 설득하려는 시도였죠. 이해되지요?

그래서 말하자면, 소피스트들은 철학보다는 수사학에, 어떤 과학보다는 수사학에 몰두했던 것처럼 보입니다. 1800년경까지 '과학'이라는 단어는 단순히 이론적인 지식을 의미했다는 점을 기억해 두세요.

그렇다면 그들은 우주론에 대해 회의적이었던 걸까요? 게다가 그들의 관심사는 이론적인 문제보다는 실용적인 문제에 있었습니다. 적어도 소크라테스 이전 사상의 흐름을 따른다면, 윤리적 관심이 당연히 드러날 만한 곳이 바로 실용적인 문제 말입니다.

질서정연하고 바람직한 삶, 사물의 본성에 근거한 도덕에 대한 관심이었다. 그러나 소피스트들은 그렇지 않았다. 그들은 도덕을 관습적인 것으로 여겼다.

단순히 사회적 합의, 사회적 관행, 어쩌면 우리가 사회 계약이라고 부르는 것과 같은 문제이며, 따라서 상당히 상대주의적입니다. 그들은 진실과 정의를 추구하기보다는 성공을 거두고, 토론에서 이기고, 논쟁에서 이기는 데 더 집중합니다. 이해하시겠지요?

적어도 그들의 단편적인 기록들과 플라톤, 소크라테스의 글에서 우리가 얻는 그림은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 소피스트들에게서 데모크리토스의 유물론적 태도를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소피스트들은 유물론적 형이상학을 가지고 있지 않고, 아예 형이상학 자체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점이 다릅니다.

현실의 본질에 근거한다는 생각을 거부했습니다 . 데모크리토스에게 있어 세상 만사는 우연의 산물일 뿐입니다. 그러니 자신이 아는 것을 활용하여 즐거움을 누리되, 고통스러운 과도함은 피하십시오.

네, 소피스트 들 중에는 그런 쾌락주의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있지만, 어쨌든 그들은 소크라테스 이전 철학자들에게서 나타나기 시작한 자연적 도덕법이라는 개념 자체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즉, 사물의 본성에 근거한 도덕이라는 자연적 도덕법이라는 개념 자체를 거부한 것입니다 .

그리고 그것에 반대하는 대신, 대안으로 윤리적 상대주의가 제시됩니다. 상당히 철저한 윤리적 상대주의죠. 만약 이런 문제를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시다면, 철학자 앨러스테어 매킨타이어의 최근 저서들을 읽어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에 재직 중인 앨러스테어 매킨타이어는 윤리학의 역사와 관련하여 제가 나중에 언급할 세 권의 저서를 집필했습니다 . 그는 역할 윤리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역할 윤리에서는 서로 다른 접근 방식 간에 너무나 많은 불일치가 존재하기 때문에 결코 해결책을 찾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는 상대주의 역시 거부하기 때문에 상대주의가 아닌, 오히려 덕성을 강조하는 윤리에 주목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에 뿌리를 둔 전통과 같은 맥락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그의 최신 저서는 『도덕적 탐구의 세 가지 대립되는 관점』 (Three Rival Versions of Moral Inquiry)입니다.

두 가지 윤리관 중 하나는 18세기 계몽주의 시대의 윤리관으로, 윤리를 선과 옳음, 그리고 그 밖의 모든 것에 대해 우리 모두가 완벽한 합의에 도달할 때까지 점진적으로 발전하는 과학으로 간주하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니체와 같은 인물들이 대표하는 윤리관으로, 완전히 상대주의적이며, 따라서 정의보다는 권력 추구로 회귀한다. 이는 일부 소피스트들의 사상과 흥미로운 유사점을 보여준다.

세 번째는 플라톤-아리스토텔레스 전통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덕 윤리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것이 토마스 아퀴나스에서 훨씬 더 완벽하게 정립되었다고 생각합니다 . 그래서 이것은 매우 흥미로운 주제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윤리 이론에 대한 논쟁의 최첨단에 있는 지점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러한 논쟁이 여러 면에서 고대까지 거슬러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매킨타이어에 따르면 1990년대, 아니 정확히는 1980년대(그가 이 책을 80년대에 썼기 때문에 지금은 90년대이지만)의 윤리적 상황을 이해하려면 훨씬 더 먼 고대 그리스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

보시다시피, 이것이 우리가 지금의 위치에 오게 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제가 앞서 언급했듯이, 소피스트들은 신에 대해 아는 것에 대해 회의적입니다.

신이 존재한다면 말입니다. 이제 소피스트들의 글 중 일부를 살펴보세요 . 그러면 이 점을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카우프만의 책 53페이지 를 보세요 .

53페이지에는 프로타고라스의 짧은 구절들이 몇 개 실려 있습니다. 그중 첫 번째 구절은 오늘날까지도 많이 인용되고 있습니다.

분명 들어보셨을 거예요. 요컨대, 인간이 만물의 척도라는 거죠. 네.

맨 아래 53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척도는 인간입니다. 존재하는 모든 것은 그저 존재하는 것일 뿐입니다.

존재하지 않는 것들에 대해, 그것들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 알겠죠? 누가 무엇이 존재하는지 정하는 거죠? 아시겠죠.

개인이 곧 심판자인 듯하다. 우리 스스로가 우리만의 진실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진실은 발견이라기보다는 만들어내는 것에 가까운 것 같다.

오늘날 상황에 대해 종종 나오는 이야기들을 흥미롭게 예견하는군요. 혹시 여러분 중에 몇 년 전에 나온 앨런 블룸의 베스트셀러, 『미국 정신의 종말』을 읽어보신 분이 있나요? 아마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는 현대 대학생들이 마치 진실과 거짓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말한다고 비판합니다. 마치 진실과 거짓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말이죠.

옳고 그름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가치관을 만들어갑니다.

보시다시피, 저에게 진실인 것이 다른 사람에게는 진실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결국 사람이 모든 것의 척도입니다.

그런 의미에서요. 그래서 주인공의 말은 종종 상대주의의 전형으로 여겨지죠. 그리고 다음 페이지 54, 4번째 문단, 신들에 대한 부분을 보세요.

나는 그것들이 존재하는지 존재하지 않는지, 혹은 어떤 모습인지 알 수 없다. 알 수 없게 만드는 요인은 여러 가지가 있다. 주제 자체가 불분명하고, 인간의 수명은 짧기 때문이다.

음, 주제의 모호함과 인간 수명의 짧음에 대해서는 우리 의견이 일치할지도 모르겠네요. 하지만 그가 지식의 가능성에 대해 전반적으로 비관적이라는 점에 주목하세요. 그리고 6B에서 다시 한번 흥미로운 점은, 약한 자를 강한 자로 만들라는 그 작은 격언입니다.

그가 무슨 생각을 하고 그런 말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약한 자가 강한 자를 부추긴다는 건 좀 부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아시잖아요.

마치 모든 질서가 뒤집힌 것 같네요. 프로타고라스 말이죠. 다음은 고르기아스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여기서는 회의적인 태도가 아주 노골적으로 드러납니다. 이 부분은 섉스투스 엠피리쿠스의 저서, 아마도 피론주의 개요에서 발췌한 것입니다.

섉스투스 엠피리쿠스는 로마의 작가로, 회의주의의 역사적 흐름을 요약하고 개괄적으로 정리하려고 시도했습니다. 고르기아스가 등장하는데, 서두에 제시된 세 가지 주요 요점을 주목해 보세요.

1.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다. 2. 만약 무언가가 존재한다면, 그것은 이해할 수 없다. 알 수 없다.
3. 이해할 수 있는 것, 알 수 있는 것은 소통할 수 없는 것이다. 그것에 대해 이야기할 수 없다. 이보다 더 완벽한 회의론을 찾기는 어려울 것이다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아. 음, 당신은 확실히는 모른다고 하셨잖아요. 좋아요, 그럼 만약 무언가가 존재한다면, 저는 그게 뭔지 알 수 없겠네요.

글쎄요, 확실히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설령 안다고 해도 당신이나 다른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어요. 그 이야기는 꺼내지도 않을 거예요.

보시다시피, 단서 조항에 주목하세요. 확실히는 모르겠지만, 설령 안다고 해도요. 왜냐하면 완전한 회의론자란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단언할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가 그 사실을 안다면, 그는 완전한 회의론자가 아니죠.

완전한 회의론자는 "나는 아무것도 알 수 없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만약 그가 그렇게 말할 수 있다면, 그는 완전한 회의론자가 아닙니다. 완전한 회의론자는 단지 "글쎄, 내가 아는 한, 나는 아무것도 알 수 없다"라고 말할 수 있을 뿐입니다.

제가 아는 한, 그런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뭐, 만약 존재한다면... 자, 여기 고르기아스의 글이 있습니다. 로마서 2장 첫 번째 열 맨 아래 55절에서 그가 이 내용을 어떻게 전개하는지 주목해 보세요.

만약 마음의 개념들이 실재가 아니라면, 다시 말해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실재가 아니라면, 실재는 사유될 수 없다. 실재는 사유될 수 없다. 우리가 그것에 대해 생각할 수 없다면, 실재는 사유될 수 없다.

그래서 문제는 생각과 현실 사이에 어떤 대응 관계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아마도 그는 진리란 생각과 현실 사이의 어떤 대응 관계일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만약 대응 관계가 없다면, 우리는 현실에 대해 생각할 수 없다는 뜻이 되겠죠.

로마서 3장을 보세요. 거기서 그는 소통의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단락 여섯 번째 줄에 "우리가 소통하는 것은 언어다"라고 말합니다.

말은 실재하는 사물과 같은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우리는 실재하는 사물이 아니라 말만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근본적인 것은 말이 결코 지각 가능한 것을 정확하게 표현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지각 가능한 것은 말 그대로 우리가 지각하는 것입니다. 언어는 우리가 지각하는 것을 정확하게 표현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언어는 지각하는 것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각 가능한 것은 각각의 감각 기관에 의해 파악됩니다.

언어는 또 다른 감각기관을 이용합니다. 따라서 지각 대상은 지각 이외의 다른 기관에 제시될 수 없으므로, 서로 다른 감각기관은 서로 정보를 주고받을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언어는 지각 가능한 것에 대한 어떤 정보도 전달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만약 어떤 것이 존재하고 이해될 수 있다면, 그것은 전달될 수 없다. 결론이다. 하지만 그 이후의 자료에서 고르기아스에게 어떤 추가적인 내용이 부여되었는지 주목해 보라.

헬렌의 인코니움을 보세요. 1단락. 그가 말하는 미덕은 어떤 종류일까요? 도시의 영광은 육체의 용기, 영혼의 아름다움, 행동의 지혜, 언행의 미덕, 그리고 진실에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든 칭찬할 만한 것을 칭찬하고 비난 할 만한 것을 비난하는 것이 옳습니다.

자, 이제 그 다양한 미덕들을 주목해 보세요. 용기와 아름다움에 대해 이야기하자면, 바로 그것이 고대 영웅들의 미덕이죠. 이해되지 않아요? 영웅적인 미덕 말이에요.

그가 말하는 지혜의 의미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이 용어는 신중함으로 번역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중함이란 단순히 결과 때문에 자신을 보호하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고르기아스가 여기서 언급하는 것은 영웅적인 미덕들을 가리키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미덕들은 초기 그리스인들에게서 나타났지만, 헤시오도스와 같은 사람들은 이를 비판했습니다. 그들은 용기, 외모 등보다는 정의를 훨씬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자, 계속 읽으시면서 같은 페이지의 8번째 문단을 보세요. 말은 가장 작고 눈에 띄지 않는 형태를 통해 가장 신성한 일을 이루어내는 위대한 힘입니다. 말은 두려움을 없애고, 슬픔을 없애고, 기쁨을 만들어내고, 연민을 증진시킬 수 있습니다.

수사학의 힘. 물론, 당신은 어떤 연설이나 연설자에 의해 감동받는다든가 어떤 건지 잘 알겠죠. 하지만 마틴 루터 킹 목사의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연설은 기억 못 하실 수도 있겠네요.

텔레비전 옆에 앉아 그 이야기를 듣고 보면서, 자리에서 일어나 환호하고 싶었던 기억이 납니다. 수사학은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죠. 자, 맞은편 12번째 문단을 보세요.

말로 설득하는 것은 강제로 납치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아, 나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그리고 13장에서, 말에 설득력을 더하면 원하는 어떤 인상이라도 영혼에 심어줄 수 있다.

교활하다. 그리고 14. 영혼의 구성에 대한 언어의 힘은 약물이 신체 상태에 미치는 영향과 비교할 수 있다. 당신을 잠들게 한다.

알겠습니다. 고르기아스가 보는 것은 선과 악을 행할 수 있는 엄청난 잠재력입니다. 수사학에서 그것을 어떻게 정의하든 간에 말이죠.

자,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아니, 고르기아스 이야기는 이쯤에서 마치죠. 우리가 그의 저작을 직접 접할 기회는 없지만, 플라톤의 대화편, 특히 『국가』에 등장하는 또 다른 소피스트가 바로 트라시마코스입니다.

슈토프의 소피스트들에 대한 설명에도 그에 대한 언급이 있습니다. 하지만 “정의는 강자의 이익이다”라는 말은 트라시마코스에게서 유래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정의는 강자의 이익이다.

아니면 원하신다면, ~일지도 몰라요 권력을 가진 자들이 무엇이 옳은지 결정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프리드리히 니체가 1900년경 도덕의 계보에 관한 저서에서 상세히 설명한 논지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따라서 트라시마코스는 윤리적 상대주의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윤리적 상대주의자는 도덕적 설득의 힘이 수사학의 힘에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수사학이 왜 그렇게 중요한 걸까요? 바로 이성보다는 감정에 호소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 점을 강조하기 위해 제가 몸을 앞으로 기울이고, 훌륭한 수사적 표현을 동원해 “수사학은 감정에 호소합니다”라고 말한 것을 눈치채셨나요? 제가 이렇게 말함으로써 여러분의 감정, 느낌을 포착한 것 입니다 . 수사학 그 자체가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감정 에 호소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 하지만 이성을 마비시키고, 이성을 억누르고, 무력화시키고, 약물로 취하게 만든 상태에서 감정을 조종하는 것은 더욱 잘못된 것입니다 . 바로 그 차이입니다.

이제 우리는 소크라테스와 플라톤을 살펴보면서 흥미로운 대조를 접하게 될 것입니다. 신중한 사고, 사려 깊은 논증, 그리고 철학적 탐구의 사용과 수사학의 사용 사이의 대조 말입니다. 자, 사람들의 관점에 영향을 미치려면 어떤 방법을 사용해야 할까요? 감정을 자극하는 수사적 기법 만 사용해야 할까요? 아니면 설득력 있는 논리적 사고를 통해 설득력을 높여야 할까요?

자, 이것이 소피스트들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전부는 아니라는 말도 있죠. 실제로 같은 시대의 안티폰에서 발췌한 내용도 있습니다.

편집자 주에서 언급했듯이, 그가 소피스트가었는지 아닌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논쟁 속에서 안티폰은 악당보다는 선한 편에 서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59페이지를 보세요. 안티폰이 이렇게 말합니다. “정의란 자신이 시민으로 있는 국가의 법을 어기지 않는 것이다. 사람은 증인이 있을 때는 법을 지키고, 증인이 없을 때는 자연의 법칙을 지킬 때 가장 정의롭게 행동할 수 있다.” 이제 자연의 법칙에 주목하세요.

법률의 명령은 인위적으로 부과된 것이다. 자연의 명령은 필연적이다. 더 높은 권위는 어디에 있는가? 법률의 명령은 자연적인 성장이 아니라 합의에 의해 도출되는 것이다.

자연적 도덕 법칙 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 그건 당신의 문제입니다. 도덕 법칙 자체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당신에게는 영향을 미칩니다

십계명을 지키지 않는다고 해서 십계명 자체가 비판받는 것은 아닙니다. 십계명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비판받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점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어긴 사람이 그 계명에 동의한 사람들의 눈을 피해 간다면, 그는 수치와 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그가 칙령을 내린 자들을 피하지 못한다면, 그는 그것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그는 붙잡혀 처벌받을 것이다. 그러나 만약 어떤 사람이 자연의 법칙을 어긴다면, 비록 인간의 모든 눈을 피해 다닌다 하더라도 그 악행은 결코 가볍지 않다.

설령 모두가 본다 해도, 그 피해 는 더 커지지 않는다. 그는 어떤 의견 때문에 상처를 입는 것이 아니다. 그 이유는 바로 그 사실 때문이다.

그러니까 안데르톤은 아주 분명하게 헤시오도스와 소포클레스 같은 사람들의 편에 서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변화가 명확해지는 것 같습니다. 60페이지 맨 위를 보시면 또 다른 단락이 있습니다.

우리는 고귀한 가문에서 태어난 자들을 존경하고 기린다. 그러나 고귀한 가문에서 태어나지 않은 자들은 존경하지도 기리지도 않는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야만인과 같다.

아, 영웅적인 미덕은 상관없어. 알겠어? 고귀한 혈통. 귀족적인 태도 말이야.

그건 안 돼요. 그런 면에서 우리는 야만인과 같아요. 야만인이든 그리스인이든 우리는 모두 본질적으로 모든 면에서 똑같이 태어났어요.

자연의 법칙을 준수하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으며, 그 법칙은 강제적입니다. 따라서 이 지점에 이르면 그 차이가 꽤 명확 해집니다. 의견 이나 질문 있으신가요? 이 주제가 어떤 질문들을 불러일으키는지 아시겠죠 .

소크라테스 이전 철학자들 사이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은 철학적 의견 불일치는 결국 회의주의와 상대주의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할까요? 진리와 선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 말입니다. 아닙니다.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식 추구를 수사학이나 권력 추구로 대체하는 것만이 유일한 대안일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꼭 그런 건 아닙니다. 하지만 다른 대안이 있다면, 지식이 가능하다는 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인식론이 있어야 한다는 점을 알아두세요. 이해되지 않아요? 어쩌면 소크라테스 이전 철학자들의 문제는 지식을 추구했다는 것 자체가 아니라, 그 과정에 충분히 체계적이지 못했다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들은 추측을 하고, 막연하게 짐작을 해보는 중이었다. 일종의 지적인 추측이었다. 그럴듯한 이야기를 만들어내고 있었다.

문제나 쟁점, 어려움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다가 어쩐지 결론에 도달하는 식의 접근 방식이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일종의 인식 방법론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소크라테스 이전 철학자들은 그런 방법론을 가지고 있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가 바로 그 점을 다루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그러한 명백한 필요성을 지적합니다. 그리고 인식 방법론과의 관계 속에서 지식의 본질을 이해하려는 시도가 바로 인식론이라는 철학 분야입니다.

그래서 소크라테스 이전 철학자들에게는 암묵적이었던 철학적 의제의 일부가 플라톤 이후로는 명시적인 철학적 의제, 그것도 주요한 부분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소크라테스 이전 철학자들과 소피스트들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다음은 소크라테스입니다.

소피스트에 대해 질문이나 의견 있으신가요? 네. 아니요. 아니요, 아직 슈툼프의 자료를 읽어보지 않으셨다면 읽어보시면 그들의 문체에 대한 몇 가지 통찰을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들은 어떤 조직적인 의미의 학파도 아니었고, 한 곳에 모여 있지도 않았습니다. 소피스트라는 용어는 문자 그대로 '현명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지혜롭다고 주장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대중적으로 현명한 사람들로 여겨졌습니다. 보통 떠돌아다니며 여러 도시나 주를 돌아다니면서 젊은이들을 가르쳤습니다.

떠돌이 교사들이었죠. 아시다시피, 그들은 아이들에게 선한 것을 가르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실제로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아시다시피, 문제는 그들이 아이들에게 무엇이 선하고 진실한지에 대한 지식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수사적인 기술, 즉 귀족 청년으로서 공적인 영역에서 성공하는 방법을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생에서 성공하는 방법, 친구를 사귀고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방법. 그런데 플라톤은 그들을 마치 진리와 정의라는 유산을 배신한 자들처럼 취급하며, 그들이 마땅히 전파해야 할 것들을 저버린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보시다시피, 네. 그러니까 그들 사이에 협력은 전혀 없다는 거죠 .

오히려, 이런 종류의 생각을 발전시킨 몇몇 사람들이라고 보는 게 맞겠죠. 자, 이제 소크라테스에 대해 몇 가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소크라테스와 플라톤이라는 이름을 거의 같은 의미로 사용해 왔습니다.

자, 다시 한번 슈툼프의 말을 읽어보세요. 아테네인들은 소크라테스를 소피스트들과 같은 부류의 현자 중 한 명으로 여겼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그들은 소피스트들을 같은 부류 로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 다시 말해, 그는 동료들에게 차별 없이 받아들여졌습니다.

보시다시피, 소피스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소크라테스는 달랐습니다. 그는 특별했습니다.

그는 오늘날 소크라테스식 문답법으로 알려진 방법을 개발했습니다. 그 자신이 말했듯이, 그는 가업을 이어받았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산파였습니다.

그는 자신 도 같은 사업을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 그는 사람들이 마음속에 품고 있는 아이디어들을 세상 밖으로 꺼내주는 지적인 조산사 같은 존재입니다. 사람들의 머릿속에 형성된 아이디어들이 세상에 나와 검토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하는 일을 하나의 훈련으로 여기며, 스스로를 지적인 조산사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진리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영혼이 올바르게 발달하고, 양육되고, 훈련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의 주된 관심사는 성공이 아니라 인간 영혼의 도덕적 양육입니다.

영혼의 보살핌. 그리고 플라톤에 이르러서는 그 역시 같은 맥락을 따른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플라톤은 영혼의 수양에 관심을 두었습니다.

아, 플라톤은 소크라테스를 알고 있었고 그의 방법을 배웠던 것 같습니다. 그는 소크라테스보다 더 체계적으로 가르치고 글을 썼으며, 그래서 플라톤의 저작들이 우리에게 전해졌고, 많은 대화편에서 소크라테스가 주요 인물로 등장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소크라테스에 대해 이야기할 때는, 플라톤의 대화편을 통해 알게 된 소크라테스를 떠올리는 것입니다.

다른 그리스 작가들을 통해 소크라테스에 대해 알려진 것은 많지 않습니다. 따라서 소크라테스는 플라톤의 훨씬 더 광범위하고 체계적인 세계관이 발전된 토대가 된 사상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소크라테스의 유명한 말, "너 자신을 알라"는 것은 자신을 알고 영혼의 상태를 알 때 비로소 영혼을 더욱 잘 가꾸어 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소크라테스는 바로 이 영혼의 가꾸기, 이 영혼을 돌보는 일에 지대한 관심을 쏟았습니다. 그렇다면 그는 어떻게 이 일을 했을까요? 첫째, 사람들에게 진리, 선, 미덕에 대해 생각하도록 이끌었습니다.

제가 드린 플라톤 대화록 목록을 살펴보면, 다양한 질문과 덕목에 관한 여러 대화록들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플라톤의 『국가』 전체는 '정의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책은 소크라테스와 칼리클레스, 트라시마코스 같은 소피스트들을 포함한 몇몇 그리스인들 사이의 논쟁으로 시작됩니다. 바로 그 논쟁 속에서 트라시마코스는 정의란 강자의 이익이라고 말합니다.

이자 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제 말은, 정의는 당연히 강자에게 이익이 된다는 거죠. 강자요. 네, 더 많은 권력과 힘을 가진 자들에게요.

아, 그러니까 당신 말은, 신체적으로 더 건강하고 강한 노예들이 지배자들을 몰아낼 수 있다면, 그것은 강자의 이익에 부합하므로 완벽하게 정당하다는 뜻인가요? 아니요, 저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무슨 말씀이신가요? 트라시마쿠스는 결국 자신의 처음 발언을 수정하고, 경솔했던 가설을 바로잡아야 했습니다.

자, 질문을 통해 사람의 사고방식을 확장시키고, 더 나아가도록 이끌어, 자기모순이 드러나거나 터무니없는 결론이 나올 때까지, 혹은 합리적이고 타당하며 일관성 있는 진실이 드러날 때까지 몰아가는 과정, 그것이 바로 소크라테스식 방법입니다. 그것이 바로 지적 조산사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플라톤이 변증법이라고 부르는 방법론의 시작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마르크스주의 변증법, 즉 정, 반, 합과 같은 개념과 연관시키지 마십시오. 그것은 후대에 등장한 용어입니다.

변증법이라는 개념은 그 용어의 어원에 문자 그대로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그들은 생각하는 데 동사 레고를 사용합니다. 로고스는 물론 그와 상응하는 명사입니다.

Dia는 '통해서'라는 뜻의 전치사입니다. 따라서 변증법은 간단히 말해서 어떤 것을 '통과해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다지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무언가를 꼼꼼이 생각하는 것. 하지만 꼼꼼이 생각한다는 것은 질문을 통해 깊이 파고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신이 그렇게 말할 때 무슨 뜻인가요?", "그것은 무엇을 암시하나요?", "이것과 논리적으로 일관성이 있나요?", "더 나아가 어떤 함의가 있나요?" 와 같은 질문들을 던지며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수업에서 가끔 소크라테스식 문답법을 시도합니다. 저는 보통 입문 수업 첫날에 이 방법을 사용합니다.

강의 계획서를 나눠주기 전에, 여러분 중 일부는 기억하시겠지만, 저는 칠판에 '철학'이라고 쓰고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러분은 이 수업을 신청했고, 똑똑한 사람들이니 왜 신청했는지 알고 있겠죠. 자, 철학이 무엇인지 말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은 대략적인 정의를 내놓는데, 여러분 중 일부는 기억하시겠지만, 다소 불완전한 정의 일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소크라테스식 문답법을 사용하여 이것저것 질문하고 반박하며, 점차 다듬어 나가 마침내 한동안 함께할 만한 개념을 만들어냅니다. 이것이 바로 소크라테스식 문답법입니다.

대학원 시절에 한 교수님께서 종종 그 표현을 사용하셨습니다. 철학 분야의 최근 연구에 대한 고급 세미나에서 제가 읽고 있던 내용에 대해 몇 마디 의견을 제시했는데, 교수님께서 "좋아요, 계속 말씀해 보세요."라고 하셨습니다. 그러자 저는 또 다른 생각을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좋아, 이제 다음은 뭐지? 밀어붙여, 밀어붙여, 밀어붙여. 생각해 봐, 생각 좀 해 봐. 변증법적으로, 꼼꼼하게 생각해 봐.

네, 그게 바로 그 방법입니다. 소크라테스가 추구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소크라테스의 경우, 도덕적 이상, 즉 미덕에 대한 진리를 아는 것입니다. 정의란 무엇일까요? 사랑이란 무엇일까요? 우정은요? 용기란요? 등등.

그래서 소크라테스의 공헌은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소크라테스의 이야기를 알고 있을 겁니다. 그가 아테네의 젊은이들을 타락시켰다는 혐의로 기소된 이야기 말이죠.

물론, 사람들에게 생각하는 법을 가르치는 건 위험한 일이죠. 부모나 유권자들은 젊은이들이 자신들이 원하지 않는 생각을 하기 시작하면 좋아하지 않는 게 당연합니다. 뭐, 그건 아주 오래된 문제죠.

남은 인생을 순탄하게 살고 싶다면 교육계에 발을 들여놓지 마십시오. 하지만 소크라테스는 기꺼이 그 고난을 감수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마지막 순간까지 처형을 피하기 위해 물러서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전날 밤 탈출할 기회가 주어졌을 때조차 그는 거부했습니다. 그는 사과문에서, (이 부분은 과제로 주어지지 않았지만, 본문 90페이지에 나옵니다) 어려운 것은 죽음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불의를 피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자신이 옳다고 믿었던 일을 저버리는 것, 즉 진실을 배신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다른 곳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정의로 인해 발전하고 불의로 인해 타락하는 인간의 고귀한 부분, 즉 영혼이 파괴된다면 삶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는 마치 예수께서 하신 말씀,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 도 자기 영혼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와 같은 맥락처럼 들립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플라톤과 소크라테스의 우려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의학과 운동이 육체에 미치는 영향처럼, 좋은 법률과 정의로운 통치는 영혼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이 글에서 암시되듯이, 그는 이러한 맥락에서 도시 국가의 역할, 정부의 기능, 그리고 자신의 정치 사상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플라톤의 저서에서는 유명한 아테네의 정치가이자 웅변가였던 페리클레스를 비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플라톤은 페리클레스가 이성과 덕을 중시했기 때문에 위대하다고 생각하며, 아낙사고라스와 그의 저서에 나오는 이성과 누스(nous)가 만물을 지배한다는 개념을 인용합니다. 그리고 페리클레스는 국내 정책에 있어서는 꽤 괜찮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그가 다른 국가들과 맺은 관계에 있어서는 국내 정책에서처럼 만인을 위한 정의, 즉 공평한 정의가 아니라 권력이 핵심이었습니다! 이해되지요? 심지어 국내 정책 중 일부는 시민들의 나태함과 탐욕을 부추기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그러나 특히 외교 정책에 있어서는, 정의란 친구에게는 선을 행하고 적에게는 악을 행하는 것이라는 원칙을 고수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정의란 친구에게는 선을 행하고 적에게는 악을 행하는 것이다. 플라톤은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 알겠나? 아니, 페리클레스는 자신의 강력한 수사법을 오용했기 때문이다.

생각을 없애는 데 사용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시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경력 내내 상대주의적 수사학의 전통과, 사물의 본성에 뿌리를 둔 객관적인 정의라는 것이 존재한다고 믿는 사람들의 합리적인 호소 사이에서 어정쩡하게 머물렀 습니다.

페리클레스. 아, 플라톤은 시인들을 비판했지. 호메로스.

어휴, 들어보세요. 그는 정치가나 군사 고문으로서의 경험이 전혀 없으면서도 그런 것들에 대해 글을 쓰고 있는데, 그저 다른 사람들의 글을 베끼고 있을 뿐이에요. 그는 자기만의 판단력이 전혀 없어요.

호머 말이에요. 그게 바로 그가 예술이란 그저 무언가를 모방하는 것일 뿐이라고 말하는 이유 중 하나죠. 호머는 그냥 베꼈을 뿐이에요.

호메로스를 따라한 사람이죠. 하지만 그는 특히 소피스트들을 비판합니다. 아시 겠어요? 그들은 수사학을 이용해 부와 권력을 추구했잖아요.

그들은 선과 악을 제대로 구분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플라톤의 저서 전반에는 궤변적인 수사법에 대한 비판이 깔려 있습니다. 네.

소피스트의 수사학. 아리스토텔레스의 저서 후반부로 넘어가 보면, 아리스토텔레스는 소피스트들의 오류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오늘날 영어에도 '궤변'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럴듯하게 들리지만 실제로는 그다지 합리적이지 않은 말을 궤변이라고 합니다.